

“오직 국익... 親美도 親中도 없다”

■ 李 대통령 “외통부 지난 기간 한 일 불만” 질타

“남북간 언제든 자주 만나야...韓·美 미래비전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향후 외교정책에 대해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통부가 지난 기간 동안 한 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6자회담도 추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랜 동맹국 관계에 있던 미국과 관계에 대해 외통부는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한다면 외교의 중심인 외통부는 무엇을 했느냐, 외통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온 대통령의 견해를 명확히 드러낸 발언이다.

그는 또 “우리는 21세기 세계적 추세에 걸맞지 않은 외교형태를 했다”며 “그 중심에 외통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 변화를 가져야 할 요소가 어느 부처보다 외통부가 많다”면서 “앞으로 외통부는 새로운 정부 아래 철저한 창조적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익에 위배 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란 없다”면서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과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외교는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면서 “미국도 국익에 위배 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대해, “북한과 대처해서 남북 간 화해에 손상이 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진정 북한을 위하는 길은 북한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남전략, 대북전략 이러한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있는 누구도 무력을 통해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다”며 “그렇게 될 때 남북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언제든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에 임기 중에 한 번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든 자주 만나야 한다”면서 “일본과 서를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대북전략이 아니라 인권,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명확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北비핵화 과정서 남북관계 악화 안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1일 “북한을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미국과의 관계개선 부분은 같이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금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현재 고농축 우라늄(HEU)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북미간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도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내부적 변화, 중산층 형성을 통해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총리가 자원의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자원의외교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몽골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텡스텐, 마그네슘, 금, 우식 등 광물이 많아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과 유럽이 북한의 경제자원을 선점하고 있는데 경제 지원도 해나가면서 우리도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개방이 먼저 돼야 지원을 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병행한다는 뜻이나”고 묻자 한 총리는 “완전개방 또는 부분 개방이 있을 수 있지만 6자 회담이 성공하는 것을 비핵화로 보고 이후 여러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 총리가 “이명박 정부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관계도 중히 여긴다”고 말하자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되면 프랑크까지 연결되고 철도 수송이 발달하면서 사회간접자본

도 개발되고 산업, 관광, 문화교류도 활성화되는 등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며 대(對) 러시아 관계와 유라시아 철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두 사람은 또 북중 및 북러관계는 물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 태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한 총리가 “청문회 때문에 바빠졌다. 사실과 다른 기사 때문에 곤혹스러웠고 여소야대인데 야당에서 표를 많이 줬다”고 하자 과거 대통령 재임시 한 총리가 외교장관이 있음을 상기한 듯 “한 총리는 지금 야당이 반중 친정”이라며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연합뉴스

민주당 鄭·孫 같이? 따로?

정동영 “당 전략에 따라 나를 바치겠다”

손학규 “공천 보가며 지역구 등 거취 표명”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1일 “경제세력 확보를 위한 당의 전략에 따라 저를 바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전날 수도권 출마를 시사한데 이어 이날도 공천과정을 보가며 향후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민주당 김나순 의원(서울 양천을)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의미있는 의석 확보와 경제세력을 만들기 위해 당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4·9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결심을 굳힌 가운데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

그는 “(대선패배 후) 당에 아픔이 있었지만 1차 공천혁명 이후 당이 조

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민심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고 말한 뒤 구체적 출마 지역구에 대해선 “당이 결정하겠죠”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봐야겠죠”라고 답했다.

정 전 장관의 출마 지역구와 관련, 당내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중로 출마 가능성이 비중있게 제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중로를 포함, 관악, 서대문을, 동작을 등을 놓고 정 전 장관의 전략공천 대상지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도 11일 “(지역구 출마 여부 등) 이번 총선에서의 거취 문제는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가며 적절한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경남지역을 방문해

당당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부산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담당하게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저의 자세를 말씀드린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경남지역 공천신청자가 3명에 불과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 대표는 “창원을 다시 방문한 것은 이곳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단기적으로 비례대표를 적극 발굴해 교두보로 내세울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18대 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해 진영으로 귀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 예방계획과 노 전 대통령의 경남 총선에서의 영향 등을 묻자 “초청을 받지 않아 방문을 하지 않았고 선거 영향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결국 김성이 임명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단행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날짜가 13일로 최종 결정이 났다”면서 “내일(12일)쯤 서류가 넘어오면 검토작업을 거쳐 대통령이 모레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논문중복 게재, 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공 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하중 통일장관, 이만의 환경장관, 전옥현 국

정원 1차장, 김희선 국정원 2차장, 한기범 국정원 3차장,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동반으로 진행된 임명식 직후 가진 티타임에서 김하중, 이만의 장관을 바라보면서 “인사 청문회는 그래도 받을 만해요. 두 번 받으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韓·日 ‘셔틀외교’ 재개 제 1탄

李 대통령 내달 20~21일 日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1일 한·일 양국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호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의 제1탄이 된다고 신

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방일에는 건설적인 한일관계 구축의 의미에서 한국 재계의 총수인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동행, 일본계이단(經團連) 등과 의견 교환을 하는 등 민간 대화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에 일본을 방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오는 7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북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www.kitiumyouno.co.kr = 대학편입은 희망입니다 전국에 무는 대학편입 전문

대학편입 No.1

김영에 맡겨라!

2000 편입대학 강좌안내 / 입문반 / 문과, 이공계 전문과정 / 이문반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점부평점서점

010-222-8088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강남 PMS학원 상촌점

개강 5월 1일

MEET & MEET 수준별 이문과정

= 개원 40주년기념 2월 3월반 특별이벤트 =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어고 건너편)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수점 ☎361-8111

북구점 ☎520-8111

제1회 공인중개사시험 시범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 (현태원, 남, 배, 최영아, 박, 김)

교육청 인증 사립대학 졸업 / 사립대학교 재학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개강 매월초 합격

국비무료

새콤 행정고시학원

010-222-8088

010-222-8088